

공동주택 층·향 등급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, TV조선 등 3.25) >

◆ 아파트 공시가격 ‘층·향 등급’ 전면공개 없던 일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공동주택 층·향 등급 등 산정정보 공개 확대를 발표('23.10.)한 바 있습니다.
 - 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·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.
- 다만, 발표 이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 형식, 공개방법, 공개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,
 - 개별 공동주택의 층·향 등급을 제한없이 전면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,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유리 (044-201-3422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부병 (044-201-3423) |
| | | | 사무관 | 최승필 (044-201-3426) |